

전도자의 절대망대를 세운 솔로몬

-복음으로 여는 전도서-

전도서 1:1-2, 마태복음 6:33

정윤돈 목사님

* **전1:1-2**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 **마6:33**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전해야 할 현장과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모델이신 것 같다. 저런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게 축복이다. 작은 실천을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란다. 오늘 전도서를 보겠다.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쓴 책이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누려 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헛된다는 말이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헛된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게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이것을 깨달으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의미 있는 것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거지로써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 가난하고 돈이 없고 병든 게 싫었던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다.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답이다. 체력이 영력이고, 영력이 체력이다. 내가 세계복음화할 이유를 발견하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기도할 이유도 생기는 것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 ‘헛된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증기, 공기, 습, 무상함, 허무, 공허, 헛됨, 무익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다. 237나라 5천 종족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어떤 분은 AI가 문제라고 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면 감사와 축복의 도구가 된다. 솔로몬은 그걸 알려주고 있다.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는 게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면 의미가 있다. 한순간도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것이나 우울증에 빠져선 안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은 전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전도서’라는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다. 코헬렛은 ‘많은 사람을 모아서 설교하는 사람, 설교자, 연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엑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을 하였다. 이 단어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코헬렛’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모이게 하는 자’ 또는 ‘모임의 일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교회를 ‘엑클레시아’라고 한다. 즉 전도서라는 책의 제목 안에는 ‘교회’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란 헛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 성경의 ‘전도서’라는 단어는 영어 ‘프리처(Preacher)’ 즉 설교자, 연설자, 목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영어의 ‘프리처’는 제목의 라틴어 번역본 ‘콘치오나투르’ 즉 회중 앞에서 연설하는 자를 따라 번역한 것이다. 한국어 성경의 ‘전도서’라는 단어는 중국어 한자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즉 한글성경의 ‘전도서’라는 책의 제목이 만들어진 단계는 그리스어 코헬렛에서 엑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로, 라틴어 콘치오나투르에서 영어인 프리처, 중국어인 추안다오슈에서 ‘전도서’로 된 것이다. 결국 전도서는 ‘많은 사람을 모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라는 뜻이다.

1. 먼저 전도자 솔로몬이 말씀한 ‘헛된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원어의 뜻은 수증기, 습, 공허, 허망 등을 의미한다. 즉 가치 없는 것, 나쁜 것 그리하여 인생에 손해를 끼친 것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건강을 해치는 것,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 후회스러운 것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었던 것들, 돈만 낭비했던 것들, 나에게 고통만 안겨다 주었던 것,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했던 일들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이것만 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40개국을 가봤지만 지금 보면 기억도 나지 않는다. 헛되다. 그러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한다면 놀더라도 그게 영원토록 남는다. 가장 가치있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기 바란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호흡도 해야 한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헛된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솔로몬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전도서 1장 8절 하반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박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영화 많이 보는데 보고나서 기억나는 건 별로 없다.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다. 가수도 작곡가도 시간 지나면 의미 없다. 새로운 게 또 나온다.

(2) 솔로몬은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연구들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도서 1장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리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3) 또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도 사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도서 1장 15절에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말한다.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만 안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우리는 기도해 주고 복음적으로 살려줘야 한다. 고치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생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현장에 가서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직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

(4) 네 번째로,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었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자기가 했던 일들을 16가지 말하고 있다. 전도서 2장 2절에는 “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우리나라 코미디가 없

어졌다. 사람을 웃기기 위한 노력들이 너무 힘든 것이다. 코미디언 박지선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남을 웃기는 것도 인기도 명예도 미모도 잘생긴 것도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면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려야 한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다. 전도서 2장 3절에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②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③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복음 없이는 느끼는 게 술과 담배 밖에 없다. 이제는 마약도 늘었다. 인생이 결론나지 않으면 느끼는 게 중독 밖에 없다. 솔로몬은 최고의 술을 마셨지만 허망했다. 윤리, 도덕, 철학을 다 연구해봤지만 그것도 허망하다.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④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⑤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⑥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⑦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⑧ 못들을 팠으며 ⑨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⑩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⑪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⑫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⑬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⑭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⑮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⑯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눈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하고 2장 11절에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도서 2장 11절을 함께 보겠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5) 이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쓰고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전도서 12장 12절에는 “내 아들이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도 석사학위 2개와 박사학위 2개가 있다. 그런데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까 재밌게 했다. 그 모든 과정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의미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들이다. 끊임없이 많은 책들을 짓는 게 의미 없다. 논문과 책을 쓰는 것도 금방 지나간다.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다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해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2. 그렇다면 솔로몬의 전도서와 성경에서는 가치 있고 참된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우선 ‘참된 것’에 대한 정의를 해 보고자 한다. ‘참된 것’이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참된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참된 것은 하나님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유익을 주는 일일 것이다. 참된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좋은 것이다. 참된 것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일이다. 복음 안에서 하는 일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는 인생은 참되고 바른 삶이 아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예배와 성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는 가능하다. 참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하고 참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주의할 점과 중요한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1) 첫째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다. 20대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며 감사하게 누리면 많은 문들이 열린다.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있는 문도 막힌다. 언약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청년 때 CVDIP와 미래와 비전을 그려야 한다. 세계복음화와 237나라를 위해서 작은 걸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열어주신다. 왜 청

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 인생이 짧다. 전도서 12장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히질 것이며 밧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 날이 우리에게도 다 온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2)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어느 순간 그 때가 온다. 여러분이 의미 없게 살면 그 시간이 두렵다. 그러나 의미 있게 살면 두렵지 않다. 어떻게 지혜를 알 수 있을까? 그게 예배다. 예배에서 깨닫고 현장에서 전하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살리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3)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참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 전도서 7장 5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 없이 노래 들으면 인생을 망친다. 그들이 다 복음 없으면 혼자 있을 때 갈등하고 우울한 사람들이다.

(4) 결국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한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전도서의 결론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에 대한 더 정확한 결론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부활메시지다.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셨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한다. 일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성경대로 살아가면 응답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예수님이 ‘되리라’하심을 믿는다. 저는 지방출신으로 27살까지 해외를 가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다. 이 전도와 선교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란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디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⑥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제목이 성취될 줄 믿는다. 끝으로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알고 오직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현장에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과 생명들과 후대들과 함께 영광 돌리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의미를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